

자전거, 사회 평등·여성 해방 상징되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삶을 자전거에 빗댄 말이다. 굳이 아인슈타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균형은 중요하다.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고 균형도 잡을 수 있듯, 삶은 계속해서 어떠한 활동을 매개로 영위된다.

삶은 끝날 다양한 사물에 비유된다.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물 가운데 인간의 본성과 유사하고 사회적 특질과도 연계할 수 있는 사물이 있다. 바로 자전거다.

우리의 삶을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한 책이 출간됐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의 기계’인 자전거가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바꿔놓았는지를 흥미진진하게 기록한 책이다. 저명한 자전거 전문가이자 역사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한스-에르하르트 레싱이 펴낸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가 바로 그것.

19세기 디트리트 지역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다. “역사가들이 ‘자전거의 완성’이라 말할 때 19세기 최대 사건’이라 결론 내린다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전거가 인류에 미친 영향력, 즉 모든 사람이 그 덕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론일 테니까.”

자전거의 등장을 ‘19세기 최대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지난 2017년은 자전거가 세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한스-에르하르트 레싱 지음·장혜경 옮김

상에 출현한지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자전거는 탄생 순간부터 극적이었다.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 없었다면 부각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엄청난 화산재는 유럽의 하늘까지 덮였고 그로 인해 기근이 들었다. 그 결과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기르기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카를 폰 드라이스의 ‘달리는 기계’에 눈을 돌리게 된다.

“1817년 카를 폰 드라이스는 자신이 만든 달리는 기계를 타고 독일 만하임에서 출발해 12.8킬로미터 거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다.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버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역사적 순간이다.”

자연재해가 자전거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최초의 자전거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200년 동안 진화를



하게 된다. 바퀴의 수와 크기가 계량되고, 목재와 금속에서 고무 타이어로 바뀌었다.

저자는 가장 큰 변화로 자전거가 사회 평등의 상징이 됐다는 점을 꼽는다. 이전에는 걸거나 말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교통, 운송수단이였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초창기에는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전거 보급이 확산되고 품질이 좋아지면서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노동자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미국의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기자는 “자전거에 견줄 만한 사회 혁명은 없다. 바퀴 위에 앉은 인간은 기존의 수많은 공정과 사회생활의 형태를 바꾸었다”고 평했다. 그 가운데 자전거가 여성에게 자유를 선사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물론 자전거가 대중화됐다 해도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옷차림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몇몇 용감한 여성이 먼저 자전거에 올랐고 뒤이어 수많은 여성들이 자전거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다고 본다.

이후 자전거 보급의 확대로 도로에서 말이 사라진다. 마차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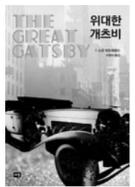


라몬 카사스 작 '인용 자전거를 탄 라몬 카사스와 페레 로메우'

를 잃었다. 소비 패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는데, 19세기 후반에는 결혼 선물 목록에 피아노 대신 자전거를 원하는 이들이 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등장으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청소년들의 필수품이거나 산악자전거 같은

스포츠 용품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며 다시 주목을 받는 추세다. ‘자유의 기계’ 자전거의 진화는 계속 될 것이다. <아날로그·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위대한 개츠비 F. S. 피츠제럴드 지음·이정서 옮김



‘현대의 고전, 미국소설의 해답’이라 일컫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발표 이후 1세기가 지난 지금도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출판사에서 작가인 이정서 번역가의 번역으로 발간한 ‘위대한 개츠비’는 기존 번역서들을 꼼꼼히 분석해 오류를 잡은 결과물이다. 그는 ‘어린 왕자’를 붙여, 영어, 한국어로 비교했고 그간 통념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 개념’과 ‘존경 개념’ 등을 바로잡아 새롭게 번역하기도 했다.

“나로서는 이 책의 제목이 왜 ‘위대한 개츠비’일지라는 의문에서 이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왜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고, 나 역시 번역서를 읽고는 그와 똑같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위대한 개츠비’는 번역자가 기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는 외에 접속어 하나 문장부호 하나까지 꼼꼼한 분석의 메스를 들이댄다. 작가가 그 단어, 그 문장부호를 사용한 동기와 목적까지 세밀히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번역자가 실제 여러 권의 소설을 펴낸 작가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 1차대전 전후의 미국 사회를 그렸다. 피츠제럴드를 비롯한 작가들은 당시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물질적 쾌락에 경도된 미국 사회에 염증을 느껴 파리 등지를 떠돌며 창작활동을 이어간다. 작품에는 구세대와 신세대, 기존 귀족계급과 신규 부르주아 계층 등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한다. <새움·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안부를 묻는 밤이 있었다 정선 지음



지난 2006년 ‘작가세계’로 등단한 정선 시인이 ‘안부를 묻는 밤이 있었다’를 펴냈다.

등단 13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한 것에서 보듯 이번 작품집에는 오랫동안 세공을 한 참신한 비유와 치열한 열정이 녹아 있는 시들이 수록돼 있다. ‘보라는 아프다’, ‘우물, 그 감정사막’, ‘고도는 매일 온다’, ‘씨앗’ 등 모두 40여 편의 시는 그러한 시적 성취를 가능할 수 있는 수작들이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지적 사유를 매개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투사한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유폐된 감정과 외로움을 대폭적으로 그려낸다.

“눈썹 하나에 모독을/ 눈썹 하나에 회오리/ 눈썹 하나에, 눈썹 하나에.../ 떨군다/ 공개진다/ 가슴 아픈 간격들/ 비로소 나는 가을문둥이/ 안부가 비껴가자/ 그물에 걸린다 연애의 가능성들/ 주파수를 변경하는 침묵들...”(‘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중에서)

위 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은 시인의 고백이 반영된 작품이다. 화자의 내면을 향하는 성찰적 시선은 깊고 담담하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은 압축적이면서도 아련하다. 김병호 시인(협성대 교수)은 “대상으로서의 사랑을 지우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궁극들. 결국 사랑에 대한 집요한 성찰을 통해 시인은 안과 바깥, 본질과 주변이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비유(非非)적 사랑을 어슬렁거린다”고 평한다.

<문학수첩·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의 파리행 나혜석 지음



요즘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페미니즘’이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 내 남녀관계의 불평등함을 깨달은 이가 있다. 1934년 이혼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며 당시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고발한 글 ‘이혼백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학가, 페미니스트, 언론인, 독립운동가 나혜석이다.

나혜석이 구미 유람 당시 남긴 글을 한 데 모은 책 ‘꽃의 파리행’이 출간됐다. 삶, 남녀관계, 여성의 지위, 자신의 그림 세계 등 철학·사상적 고민을 안고 여행을 떠난 저자가 부산에서 출발해 경성, 하얼빈, 모스크바, 파리 등 12개 도시를 거쳐 다시 부산에 돌아오기까지 1년 8개월여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책에는 조선시대 당시의 저자가 각지를 여행하며 유럽의 미술, 서구권 여성들의 생활 등을 보고 느낀 점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단순히 풍경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술가적 관점, 역사적 지식 등을 통해 성찰을 이끌어내려는 자세가 돋보인다. 특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의 충격과 조선 내 근대적 여성상의 부재에 대한 규탄을 담은 글귀는 읽는 이로 하여금 폭넓은 저자의 사고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평소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던 저자가 관광지, 공원, 미술관 등을 돌아보며 설명과 감상을 풀어놓은 글은 요즘의 작가가 썼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세련됐다.

<아비·1만3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멸종 연대기 피터 브래넨 지음·김미선 옮김



지난 5월 ‘생물다양성과지구과학(IPBES)’가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는 인간으로 인해 6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을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100만여종 이상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에 뒤지지 않는 대멸종의 전조가 드러난 지금, 앞선 5번의 대멸종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왜 의미가 있다.

과학저널리스트 피터 브래넨이 3년여에 걸친 연구로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을 파헤친 책 ‘대멸종 연대기’를 출간했다. 4억 4500만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대멸종부터 5만년 전 플라이스토크 대멸종까지 당시 생명체와 규모, 멸종의 원인 등을 집대성했으며, 나아가 100년 내로 발발할 수 있는 대멸종의 가능성과 예방 방안까지 짚은 책이다. 책은 저자가 세계적 고생물학자들이 있는 각 대학·자연사박물관 등을 찾아가 나눈 대화, 학술논문에서 발췌한 이론 등으로 채워져 있다. 허버드대 지질학자 프랜시스 맥도널드, 워싱턴대 고생물학자 피터 워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고대 화석에서 찾아낸 대멸종의 단서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은 미래에 찾아올 대재앙의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있게 역설한다.

저자는 과학 칼럼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매체에 기고해 온 과학 칼럼니스트로 지난 2011년 우즈홀해양연구소 해양과학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흐름출판·2만2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장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기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